

오순절 후 스물한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1ST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10월 2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 | | |
|-----------------------------|--|--------|
| *입례 찬양 Opening Hymn |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 다같이 |
|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 | 인도자 |
| *찬 송 Hymn | 95 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통일 82) | 다같이 |
|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 43 번 (시편 99 편) | 다같이 |
|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 | 다같이 |
|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 | 인도자 |
| *송 영 Gloria Patri |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 다같이 |
|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 | 다같이 |
|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 | 김강석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 로마서(Romans)6:1-14 | 고원희 집사 |
| 찬 양 Anthem | “너 약해졌으나” | 찬양대 |
| 설 교 Sermon |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Count Yourself Alive to God) | 김일선 목사 |
|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 “주의 은혜라” | 다같이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 | 다같이 |
| 봉 헌 Offerings | | 다같이 |
| *송 영 Doxology |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 다같이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 | 다같이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 | 인도자 |
| *파송 찬양 Sending Hymn |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410) | 다같이 |
| *축 도 Benediction | | 김일선 목사 |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도 못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했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이기적 욕망을 좇으려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거짓된 말과 위선적인 행동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삶으로,
 매순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5:13,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개역개정 롬 6:11)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NASV Romans 6: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 날짜 | 10/22 (주일) | 10/23 (월) | 10/24 (화) | 10/25 (수) | 10/26 (목) | 10/27 (금) | 10/28 (토) |
|----|---------------|--------------|--------------|--------------|--------------|--------------|--------------|
| 왕하 | 왕하3 | 왕하4 | 왕하5 | 왕하6 | 왕하7 | 왕하8 | 왕하9 |
| 본문 | 살후3 단7 | 딤편1 단8 | 딤편2 단9 | 딤편3 단10 | 딤편4 단11 | 딤편5 단12 | 딤편6 호1 |
| | 시114,115 | 시116 | 시117,118 | 시119:1-24 | 시119:25-48 | 시119:49-72 | 시119:73-96 |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 | |
|--------------------------|---|
| 수요 찬양집회 (10/25수 오후7:30) |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벧전16:12) |
| 토요 새벽기도회 (10/28토 오전6:30) |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119:129-136) |

지난 주일(10/15) 말씀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론 1:8-19)

분명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눅 15 장)에 나오는 큰 아들의 모습이나, 일만 달란트 빚진 자마 18 장)가 자신의 동료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특별하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어떤 이유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받아 달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통념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 과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전해지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은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주었고, 이로 인해 오네시모는 후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귀감이 되는 에베소 교회 감독(사도)으로 까지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이는 전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마음에서부터 동역자로 받아 준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생기를 주며, 오네시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로 살며,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써 중보하고 간구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